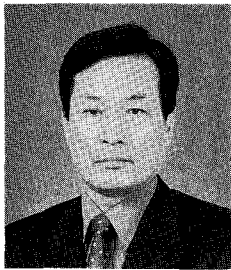


너무 잘 잃어버리는 불황의 늪



오 정 길
(본회 대구경북지부장)

매일 농장에서 닭과 함께 생활하지만, 닭과 계란을 보는 느낌이 전혀 틀려질 때가 있다.

아이들의 소풍철과 같이 계란의 수요가 좋을 때에는, 여기저기서 계란이 모자란다고 야단이다. 계란이 없어서 김밥을 싸지 못한다고 동네꼬마가 야단이고, 베이커리에서는 계란이 없어서 빵을 굽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이럴 때면 양계가에서는 닭이 하루에 계란을 2개씩 낳을 수는 없을까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 이 때의 계란과 닭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그런가하면, 닭과 계란을 보는 표정이 찌푸려질 때가 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계란을 보관하기가 힘들어지고, 계란의 수요가 떨어져 창고에 계란이 쌓여가고,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난좌의 재고가 없어서 상인에게 연락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이럴 때면 닭이 계란을 낳지 말고 좀 쉬었다가 가을 운동회때 많이 낳았으면 하고 푸념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처럼 수요기와 비수요기가 반복되는 계절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호경기 뒤에 이어지는 불경기를 농가들은 계속해서 겪고 있다.

이제 호경기가 끝나고 생각보다 불경기가 빨리 찾아왔다. 2000년과 2001년의 산란종계입식 현황에 따르면, 2002년 2, 3월부터 초생추 생산이 늘어나서 7, 8월경에 계란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부화장과 산란농가의 욕심 때문에 그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종계장에서는 밀려드는 농가의 주문에 P.S도태를 3-4주씩 미루고, 또 일부 악덕 종계업자는 환우까지 시키며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요즘의 불경기는 1980년대의 불경기와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호경기는 짧고 불경기의 골은 깊다. 아마도 과도한 투자로 금융부담이 많아지고, 유통이 복잡해졌기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S 등록통계가 맞을 리가 없다. 채란 농가도 불경기를 앞당기는 데 한 몫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노계도태시기를 한달 이상 늦추고, 이웃집 노계를 사다가 환우를 시키며 생산을 부추겼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01년 하반기에서 2002년 봄까지 산란사료를 전년대비 많이 생산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에 환우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매체에서 2002년 봄이면 불경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입추를 자제하고 환우를 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필자 역시 계우회나 지부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농가들을 설득하고, 술선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노계도태와 입추 자제, 환우자제를 할지는 의문이다. 조금만 서로 협조했다면 불경기를 잘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호경기때 불경기를 대비하여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부지런히 했는지 모르지만, 업계 전체로 보았을 때는 준비가 아주 미비하다. 여유가 있을 때 홍보비나 비축자금 같은 자조금을 많이 준비했어야 했다. 생산

표1. 양계사료 생산 현황

구 분		2002. 1~3(A)	2001. 1~3(B)	누계대A/B(%)
양	육 추	78,762 2.1	78,352 2.3	100.5
	산 란	458,689 12.3	457,861 12.4	100.2
	육 계	354,070 9.5	306,071 8.2	115.7
계	총 계	65,730 1.8	68,672 1.7	95.7
	소 계	957,251 25.6	910,956 24.6	105.1

(사료협회 참고자료)

을 조절하는 선언이나 결의문보다도, 이때 자금이 있으면 계란의 소비를 위한 홍보에 좀 더 힘쓰고, 비축도 해두며, 질병으로 질이 떨어지는 닭을 도태시키도록 지원하고 종계의 감축에도 감시와 보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는 반복되는 불경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산란계 경기 싸이클은 약 30개월이니까 불경기가 끝날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건강한 계군을 적정수준 관리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계란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올 봄의 불경기가 앞당겨진 것에는 품질이 좋지 못한 계란이 시장내에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떨어뜨려 소비를 위축시킨 것도 한 원인이다. 올여름은 어차피 계란 가격이 낮게 형성될 예정이지만, 앞으로는 생산비를 낮추고 계란의 질을 높여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말이 많은 등급제도의 단점만 보완한다면 계란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으며, 소비

자에게도 좋은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등급란 1+나 농협외 산소란 같은 계란을 적정한 가격에 시장에 콜드체인 형식으로 공급한다면 주부들은 이런 계란을 선호할 것이다. 아무리 특수란이라도 날짜가 경과되고 깨끗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것이다. 계란이 주부들에게 외면당하는 첫째 원인은 신선하지 못한 계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란 유통을 시장 상인들에게 맡겼다. 상인들은 양계발전이나 국민식생활개선 보다는 시장경제에 의해 움직인다. 물건을 싸게 구매하여 이윤을 남겨 판매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상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신선하고 깨끗한 계란을 신속히 유통시킬 수 있도록, 양계농장, 농협 GP, 농림부 등에서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계란의 유통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전국적으로 과도한 DC 문제, 후장기제도, 외상판매, 덤핑

판매 등등. 무엇을 기준으로 계란 가격이 정해지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지난 10년간 계란 가격의 변동을 보면, 일년에 약 40~50번 정도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되었다.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이도 무려 배 가까이 되니 계란시장은 아직도 원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를 우리는 유통구조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양계**

표2. 지난 10년간 대구경북지역 대란가격 변동 추이

년 도	최 고		최 저		상 승	하 락
	날 짜	가 격	날 짜	가 격		
1991	12월 3일	66	5월 25일	33	22	25
1992	3월 19일	88	7월 30일	37	21	26
1993	1월 8일	61	3월 29일	37	19	18
1994	10월 4일	85	7월 11일	39	17	20
1995	9월 20일	83	7월 4일	49	15	22
1996	9월 17일	84	6월 19일	54	21	21
1997	12월 24일	109	7월 9일	50	23	16
1998	1월 9일	104	7월 15일	64	16	17
1999	1월 25일	107	10월 1일	52	17	27
2000	9월 19일	97	3월 17일	51	20	16
2001	8월 31일	108	6월 8일	77	16	17

(대구경북지방 조사가격)